

공동체	순	지역	순장	연락처	공동체	순	지역	순장	연락처
사관교우회	1	Blacktown 1	박광원	0425-277-585	화평교우회	16	Boxhill	장미화	0450-549-957
	2	Blacktown 2	이정훈B	0432-791-114		17	Gordon/Pymble	이훈영	0403-662-342
	3	Parramatta 1	강중표	0422-598-908		18	Sydney(여성순)	권순화	0413-526-849
	4	Parramatta 2	김건우A	0410-944-726		19	Chatswood 1		
	5	Carlingford 1	이기윤	0405-228-228		20	St Leonards/Artarmon	김두기	0452-335-752
	6	Carlingford 2	김현철C	0433-894-844		21	Chatswood 2	한사무엘	0418-161-900
	7	Carlingford 3	이명근	0414-763-009		22	North Ryde	최철호	0411-635-185
	8	Kellyville 1	이재복A	0425-376-070		23	City		
	9	Kellyville 2	최성욱A	0403-243-114		24	Ryde/Newington	진범수	0430-885-674
	10	Baulkham Hills 1							
	11	Baulkham Hills 2	김현민A	0425-236-990					
	12	Baulkham Hills 3	장경곤	0408-111-165		1	Strathfield 1	이상철A	0430-575-661
	13	North Rocks 1	이성무	0412-352-039		2	Rhodes 1	이찬우B	0410 577 194
	14	여성순 1	서명희	0430-059-066		3	Rhodes 2	박향미	0402-085-437
	15	여성순 2	이성희A	0432-822-005		4	Strathfield 2	김현지C	0415 597 241
	16	Boxhill	이상태	0490-111-994		5	Ashfield	정익래	0425-273-827
	17	Schofield	정성재	0434-445-047		6	Campsie	박경덕	0412-388-473
	18	Baulkham Hills 4	박현진B	0405-094-260		7	Newington(여성순)	김재선A	0406-162-500
	19	North Rocks 2				8	Concord 2(여성순)	박혜경A	0415-663-122
	20	North Rocks 3	강문갑	0433-428-784		9	West Ryde 1		
	21	Penrith	지창진	0405-221-236		10	West Ryde 2	이중권	0435-829-479
	22	Ponds	조지석	0414-828-237		11	Strathfield 3	이해건	0423-124-950
	23	Carlingford 4	김유다	0404-443-053					
	24	Riverstone	오송열	0430-997-394					
	25	North Rocks 4	김은서A	0490-738-784					
	26	Glenwood	최재선	0420-650-156					
회관교우회					중앙교우회	1	Eastwood 1	강시형	0425-455-422
	1	Hornsby 1	허명진	0430-541-922		2	Eastwood 2	김영배	0426-624-848
	2	Hornsby 2				3	Eastwood 3	선우대식	0404-671-834
	3	Hornsby 3	신상운	0433-909-406		4	Dundas 1	조나신	0403-316-467
	4	Hornsby 4	신민수B	0435-386-104		5	Dundas 2	홍성용	0425-372-772
	5	Hornsby 5	문화창	0452-517-821		6	Epping 1	강문길	0468-900-265
	6	Hornsby 6(여성순)	이현희	0410-614-881		7	Epping 2	김완중	0414-223-861
	7	Castle Hill 1	김용호	0452-186-877		8	Epping 3		
	8	Cherrybrook 1	김재곤	0433-165-933		9	Epping 4	송금식	0424-611-465
	9	Cherrybrook 2(여성순)	김애령	0411-377-335		10	Epping 5(여성순)	이은숙A	0401-539-061
	10	Cherrybrook 3				11	Epping 6	김준형	0410-401-842
	11	West Pennant Hills	이구직	0413-866-392		12	Epping 7	이재송	0425-809-139
	12	Thornleigh	유수연B	0448-332-133		13	Epping 8	황덕만	0412-405-421
	13	Epping	용환희	0430-914-144		14	Epping 9	진정호	0450-760-570
	14	Castle Hill 2	이승진C	0432-510-715		15	Epping 11(여성순)	이은경H	0410-425-587
	15	Castle Hill 3	현정우	0422-246-640		16	Epping 12	임태건	0422-216-229
						17	Epping 13	정혜욱	0410-331-198
						18	Dundas 3	조종윤	0417-287-452

순모임 교안

2023년 11월 12일 발행 (제22권 13호)

“Why me? Why not?”

2021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은 1972년에 상원의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더없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가족이 탄 차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 그의 큰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제 막 꿈을 펼치려는 내게 이런 불행을 주느냐고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바이든의 아버지는 두 컷 만화를 바이든에게 보냅니다.

만화 속의 어떤 사람이 폭풍우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Why me?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Why not? 이후 이 만화 그림은 조그만 액자에 담겨 수십 년간 바이든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 무섭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기울이며 주님만 따라가는 새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읍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약 5:11)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

[욥기 10:1-22]

■ 마음 열기

-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어 보세요.
- 큐티 나눔, 감사 나눔, 일상 나눔 등

■ 본문 읽기

욥기 10:1-22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려 합니다.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물음에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권리라면,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 말씀과 나눔

1.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1-12절).

1) 욥이 하나님께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2절)?

2) 욥이 하나님께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3절)?

3)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7, 8절)?

나눔 1.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간곡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나눔 2.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멸시받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감정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괴로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호소합니다(13-22절).

1) 욥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고 생각합니까(13-15절)?

2)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고 느낍니까(16, 17절)?

3) 욥이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0, 21절)?

나눔 3.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냥꾼이나 침략군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욥에게 결여된 '하나님 이해', '하나님 인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함께 기도하기

- 삶: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삶을 이해하는 안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